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1월 교육 내용	04
❁ 1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1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1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1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1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1월 추천도서	66
❁ 1월 위드스티커	67
❁ 1월 교육활동지	69





암송 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창세기 12:1~2 -

♥첫째주♥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1)
*하나님은우리를소망의길로부르세요.

♥둘째주♥

“제단을 쌓은
아브람”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18)
*예배를가장중요하게생각해요.

♥셋째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19)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넷째주♥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창세기 18:23)
*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다섯째주♥

“믿음의
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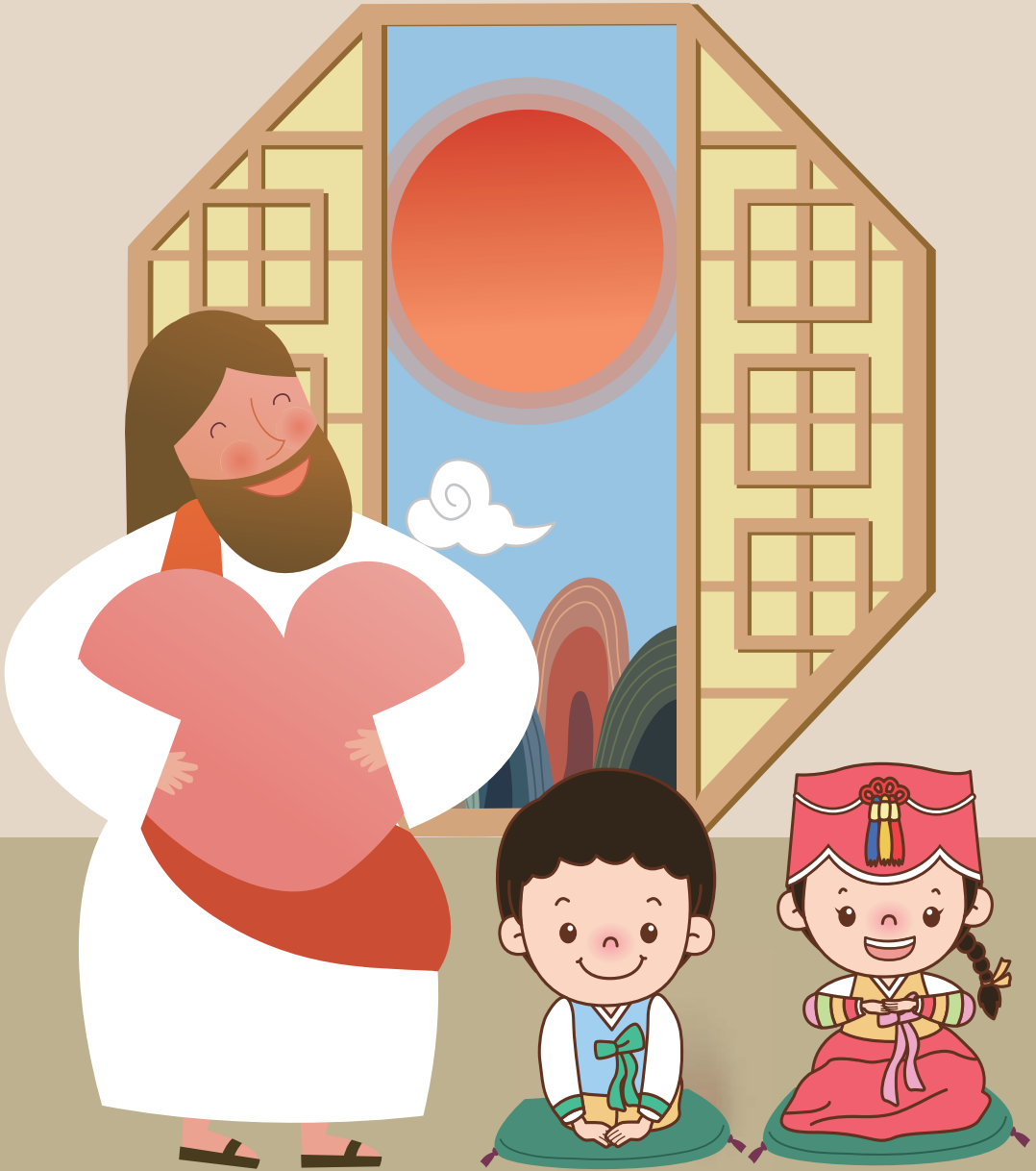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실천 내용

1.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
2.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1월 첫째주
2021년 1월 3일~9일



Memory Time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첫째주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1

♥오늘의 주제 :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2:1-9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길로 부르세요

★ 말씀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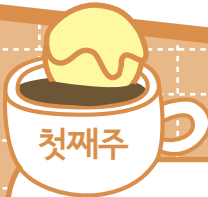
- 1 아브람을 부르신 분은 누구셨나요?
- 2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 3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 교육활동 - “나를 소개해요”

- 1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과 선생님과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2 위드 활동지에 소개된 질문을 서로에게 하며 나누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창세기 12:1

♥ 오늘의 포인트 : 소망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 창세기 12:1-9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색하지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려주신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안에서 아브람을 선택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불러 주셨어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Q 1 올 한해 우리 가정이 속한 공동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있나요?

Pray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 하나님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상 14:1-52 “요나단이 승리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7.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8.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9. 그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10.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11.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12.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13.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전초부대: 군대가 주둔할 때 적을 경계하기 위해 맨 앞에 배치하는 부대

징조: 미리 보이는 현상

겨릿소: 겨리를 끄는 소

with
관찰

1.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6절)

--	--	--

2.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에 대해 맞는 것을 고르시오? (6절)

① 군대의 수가 많음 ② 군대의 수가 적음 ③ 주님께서 도우심 ④ 군대의 위치

with
생각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군대의 수가 많거나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어요. 요나단이 전쟁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들이 올라오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믿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라고 하자 요나단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with
결심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야해요. 전쟁은 꼭 나라와 나라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5:1-35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18.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19.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20.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 떼와 소 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21.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2.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3.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4.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진멸 : 무찔러 모두 죽임

약탈 :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with
관찰

1.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엇인가요? 18절

- 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한 것
- ②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
- ③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 ④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온 것

2.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빈칸을 채우세요. (21절)

“... 잘 들으십시오. 이 제사보다 낫고,
 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with
생각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얻게 된 모든 물건이나 짐승은 완전히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죽여야 하는 짐승들 중에서 사울은 가장 좋아 보이는 양 떼와 소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with
결심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리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6:1-23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 사무엘이 주님께서 사기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5.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6.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8.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9.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10.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 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 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11.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 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2.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 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성결 : 거룩하고 깨끗함

준수 : 재주와 슬기, 품체가
 빼어남

with
관찰

1.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6절)

--	--	--

2.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7절)

- ① 큰 키
- ② 준수한 겉모습
- ③ 마음의 중심
- ④ 사람들의 인기

with
생각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았어요. 사무엘은 잘생기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with
결심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신대요. 우리도 친구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7:1-58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쓰러트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2.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안**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43.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44.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45.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6.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47. 또 주님께서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48.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49. 주머리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히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50. 이렇게 다윗은 무릿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51.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홍안 : 붉은 얼굴

투창 : 창던지기

무릿매 : 노끈에 돌을 매어
 두 끝을 잡아 휘두르다가
 한쪽 끝을 놓으면서 멀리
 던지는 팔매



with
관찰

1.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나요? (45절)

“...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곤 만군의 의 을 의지하고.”

2. 다윗은 무엇과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나요? (50절)

- ① 무림매와 돌 두개 ② 무릿매와 돌 두개
- ③ 무릿매와 돌 한개 ④ 무링매와 돌 한개

with
생각

블레셋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자신에게 나아온 다윗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승리하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을 한 개 꺼내어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고, 승리했어요.

with
결심

겉모습으로 비교해보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이 막대기만을 들고 서있는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센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모든 전쟁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키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창세기 12:1~2 -





Memory Time



제단을 쌓은 아브람

둘째주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18

♥ 오늘의 주제 : 제단을 쌓은 아브람 ▷창세기 13:14-18

♥ 오늘의 포인트 :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 말씀 나눔

1. 아브람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에 머물게 되었나요? (4절)
2.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15-17절)
3. 아브람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8절)

★ 교육활동 - “나의 예배 약속”

유년부 워드에 기재된 예배 순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유년부 예배에 대한 O.X 퀴즈를 해 보세요. 퀴즈가 끝나면 친구들 스스로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단문을 적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 창세기 13:18

♥ 오늘의 포인트 :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제단을 쌓은 아브람 ▷ 창세기 13:14-18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브람은 애굽에서 돌아와 자기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람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아브람은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는데, 머무는 곳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장막을 옮길 때 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 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도 믿으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한 '나의 예배 약속'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꼭 지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Q 1 우리 가정의 올 한해 예배 약속은 무엇인가요?

Pray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with
말씀

사무엘상 18:1-30 “시기하지 말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팽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7. 이 때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8.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9. 그 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0.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 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11.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12.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3.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14.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15.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6.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 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천부장 : 재판관 혹은
군대 지휘관

with
관찰

1. 사울과 다윗은 각각 몇 명의 적군을 죽였나요? (7절)

“... 사울은 을 죽이고, 다윗은 을 죽였다.”

2.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직책을 임명했나요? (13절)

- ① 요리사 ② 신하 ③ 천부장 ④ 목사님

with
생각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with
결심

사울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힘이 센 다윗을 시기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커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하지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19:1-24 “이웃을 도와줘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2.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3.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쭙어 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 주겠네."
4.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까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5.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 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사울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1절)

- ① 다윗 ② 요나단 ③ 바울 ④ 사무엘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7절)

- 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다.
②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다.
③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사울을 설득했다.
④ 요나단의 말을 듣고도 사울은 맹세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다.

with
생각

사울은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해주며, 도망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좋은 점에 대해 말하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결국,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with
결심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좋아했던 요나단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도와주었지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알려주고,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주변에 가족, 친구들,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가장 먼저 도와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0:1-42 “약속을 지켜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5.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36.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37.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38.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39.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40.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41.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 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42.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41절)

- ① 나무 ② 집 ③ 바위 ④ 자동차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5-42절)

- 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가지 않았다.
② 요나단은 종 여러 명을 데리고 나갔다.
③ 어린 종은 다윗과 요나단의 일을 눈치챘다.
④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끌어안고 울 때,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with
생각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약속을 지킨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약속을 지킨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들도 최선을 다해 지키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약속을 열심히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1:1-15 “다윗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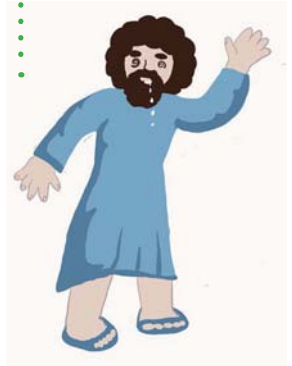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0.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12.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3.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영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14.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15.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다윗은 사울을 피해 누구에게로 갔나요? (10절)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 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에게로 갔다.”

2.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13절)

- ① 미친척 ② 기쁜척 ③ 슬픈척 ④ 화난척

with
생각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연기 덕분에 다윗은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숨겼어요. 이러한 다윗의 지혜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윗과 같은 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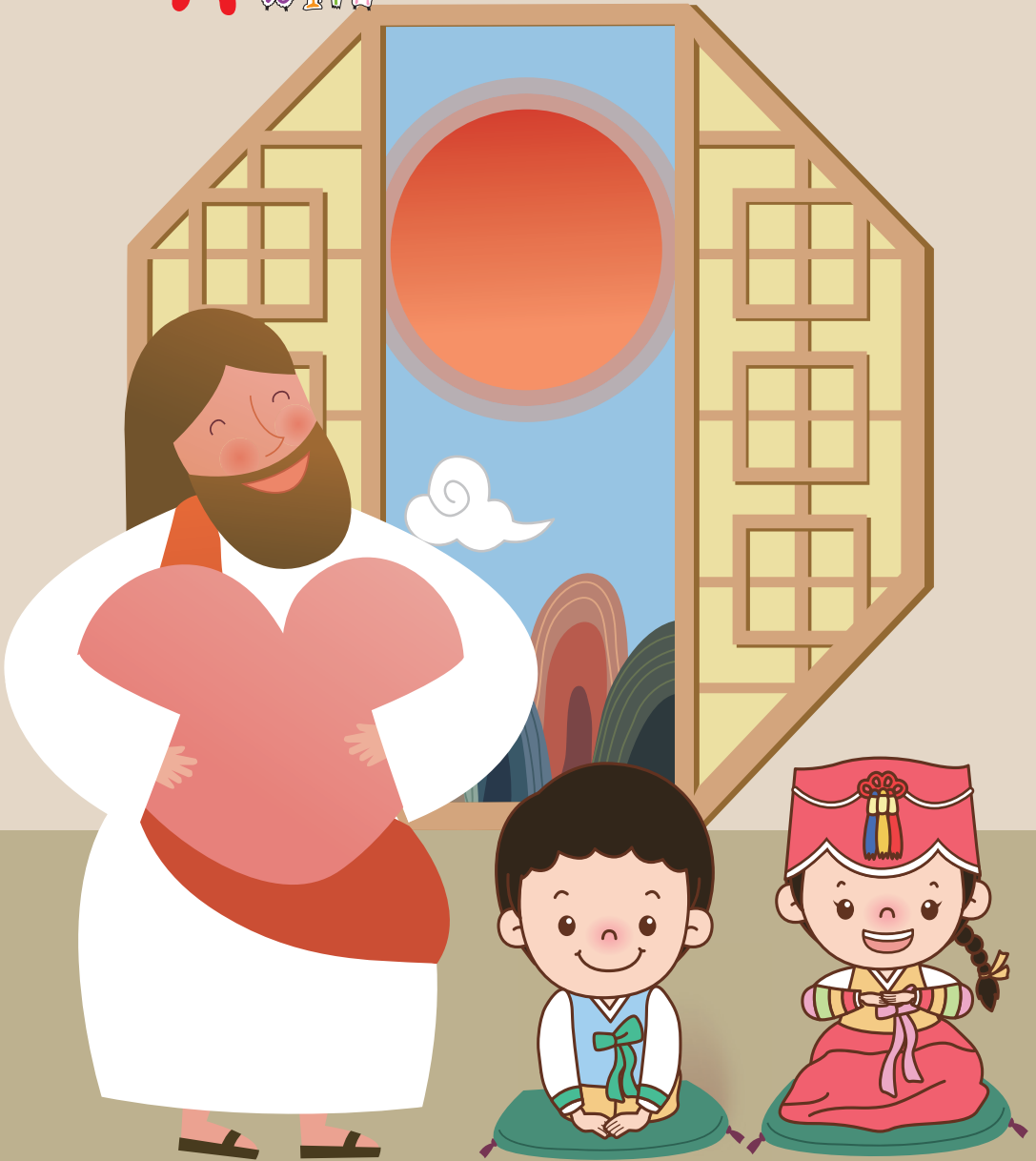
한줄 기도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창세기 12:1~2 -





1월 셋째주
2021년 1월 17일~23일



Memory Time



하나님의 약속

셋째주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창세기 17:19

♥ 오늘의 주제 : 하나님의 약속 ▷ 창세기 17:15-19, 21:1-7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 말씀 나눔

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17:19)

②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21:5)

★ 교육활동 - “내게 주신 말씀”

순서를 정해 약속 말씀 카드를 뽑아 보세요.

내가 뽑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기억하는 2021년이 되기를 다짐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창세기 17:19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약속 ▷ 창세기 17:15-19, 21:1-7

혹시 친구들 이번 주에 부모님이란, 친구랑 “꼭 꼭 약속해!” 약속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돌아보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정말 잘 지키시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을 바로 이 성경에 다 써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네!” 하고 믿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100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주일에 뽑은 그 말씀을 기억 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보기로 해요.



Q 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Pray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2:1-23 “말에는 힘이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사울이 둘러 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8.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9. 바로 그 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여 있던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농으로 와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10. 그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쭙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11. 그러자 왕은 아히둡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농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12. 사울이 호통을 쳤다. "아히둡의 아들은 똑똑히 들어라!" 아히멜렉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13.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 (생략)
16.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천부장 :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백부장 :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with
관찰

1. 아히멜렉과 다윗은 어디에서 만났었나요? (9절)

2.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칼은 누구의 것인가요? (10절)

블레셋 사람

의 칼

with
생각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들람 굴로 도망쳤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이곳 저곳 돌아다닌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통을 쳤어요. 예전에는 신뢰하던 신하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에돔 사람 도엑이 나타나 다윗이 낚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준 사실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렀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 사울을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이미 불신과 두려움,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은 도엑에게 명령하여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with
결심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수록 사울왕은 점점 두려워졌어요.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았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 듣고 싶었어요. 이때 에돔 사람 도엑을 통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주었을 뿐, 다윗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도엑의 고자질로 인해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제사장들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말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사람들을 칭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상 23:1-29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 그 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면,
-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시니,
-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스무 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 밍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이야,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나!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나!"
-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서원 :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

무남독녀 :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음

with
관찰

1. 그일라 주민들을 약탈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절)

사람

2.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일을 하든 께 묻고
 께 응답받는 사람

with
생각

다윗은 자신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어요. 자신이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향했어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사울의 손에 붙잡혔을 거예요.

with
결심

다윗은 언제 사울이 자신을 잡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 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예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었으니까 당연히 그일라 주민들도 사울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이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고 도와준 적이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려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4:1-22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3.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5.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겹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6.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7.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생략)
11.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겹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겹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2.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사울은 부하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어디 쪽으로 갔나요?(2절)
 ①사슴 바위 ②들염소 바위 ③사자 바위 ④들소 바위

2. 다윗이 변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

사울은 주님께서서

세우신 분이기에 때문

with
생각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언저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려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사울은 동굴 더 안쪽에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지 못했어요.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며 다윗을 재촉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겔옷자락만 몰래 잘랐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사람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이라는 의미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겔옷자락만 잘랐던 것이예요.

with
결심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울을 죽이고 위협의 상황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나요? 우리는 누구나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괴롭히는 친구와 가족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5:1-44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다윗은 단단히 버리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 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 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 아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 그런 다음에 아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의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장군께서는 나의 몸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 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 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 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with
관찰

1.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선을 무엇으로 갚았다고 말하나요? (21절)

2. 나귀에서 급히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23-24절)

나발의 아내

with
생각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비란 광야로 내려갔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 집안의 평안을 빌게 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먹거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무시하며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기를 들고 병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했어요. 나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급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발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 덕분에 나발은 목숨을 구했고, 다윗은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22절)라고 말할 만큼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만약 아비가일이 흥분한 다윗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발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 덕분에 나발은 죽음을 피하게 되었고, 다윗도 살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기 원하세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할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창세기 12:1~2 -





1월 넷째주
2021년 1월 24일~30일



Memory Time



아브라함의 기도

넷째주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창세기 18:23

♥ 오늘의 주제 : 아브라함의 기도 . ▷창세기 18:22-33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 말씀 나눔

- 1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했던 의인의 수는 처음에 몇 명이었나요? (24절)
- 2 나중에는 의인 몇 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했나요? (32절)

★ 교육활동 - “내게 주신 말씀”

암송구절 종이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 창세기 18:23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아브라함의 기도 ▷ 창세기 18:22-33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분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 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 인지를 알아보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믿으며 용기 있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또한 그는 겸손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지음 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끈질기게 물으며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질문할 수 있어요.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며, 최고의 특권이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Q 1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인가요?

Pray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늘 생활화 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상 26:1-25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9.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려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21.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22.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23.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 내어 주실 것입니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충동: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음

유산: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성품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감

with
관찰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돌려준 것은 무엇인가요? (22절)

“여기에 임금님의 이 있습니다. ...”

2. 다윗은 사울의 무엇을 귀중히 여겼나요? (24절)

① 생명 ② 땅 ③ 책 ④ 궁궐

with
생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이방 땅까지 다윗을 쫓아왔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악한 일에 악한 일로 맞서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상 27:1-28:25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빙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16.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오?"
17.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18.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19.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 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오."
20.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 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쪽 빠져 있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책망 :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with
관찰

1.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8절)

“당신은 주님께 하지 아니하고...”

2.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요? (19절)

사람

with
생각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모았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떨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했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어요.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며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어요.

with
결심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켰다면, 계속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상 29:1-31:13 “다윗의 승리와 사울 왕의 죽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17.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사백 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18.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19.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20. 다윗은 또 양 떼와 소 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 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생략)

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3.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4.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올 때
부하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20절)

“□□의 □□□이다!”

2.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뭐라고 명령했나요? (4절)

“..저 할례받지 못한 □□□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with
생각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습격했어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왔어요.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
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고 말았어요. 마침내
사울도 쓰러지고 말았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
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1:1-27 “다윗의 슬픈 노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 그것을 '할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 할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라.
-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제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빛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 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 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 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 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 없이 되었는가?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다윗은 누구의 죽음을 슬퍼하였나요? (17절)

□	□	과	□	□	□
---	---	---	---	---	---

2. 다윗이 슬퍼하며 부른 노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8절)

□	노래
---	----

with
생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 노래를 유다사람들에게 가르쳐 함께 부르도록 명령했어요.

with
결심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은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당연히 여기지 않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주었어요. 우리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제가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창세기 12:1~2 -





1월 다섯째 주
2021년 1월 31일~2월 6일





♥ 주제 : 아브라함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창세기 22:2

♥ 오늘의 주제 믿음의 시험 ▷ 창세기 22:1-14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②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13절)
- ③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14절)

★ 교육 활동 - “가족초청예배”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다섯째주

- ♥ 주제 : 아브라함
-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 ♥ 오늘의 포인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믿음의 시험 ▷창세기 22:1-14

아브라함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며 또한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바칠 수 있는지 기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토론하기

Q 1 우리 가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다짐해요.

Pray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사무엘하 2:1-32 “유다의 왕이 된 다윗”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1.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쭙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 주셨다.
2. 그리하여 다윗이 그 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3.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4.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아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5. 다윗이 길르앗의 아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아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7.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생략)



with
관찰

1. 다윗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갔나요? (1절)

“ ... 주님께서 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2.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었나요? (4절)

- ① 서울 ② 뉴욕 ③ 길르앗의 아베스 ④ 로마

with
생각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한 뒤, 다윗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두 아내와, 가족들과, 온 부하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with
결심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어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고,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지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걸음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님께 여쭙어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3:1-23 “원수를 갚지 마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2. 그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락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때에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 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23.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 주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 곳을 떠나갔습니다."
24.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25.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26.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28.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29.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습격: 갑자기 상대방을 덮쳐 침

노락물: 강제로 빼앗은 물건

with
관찰

1. 요압과 아비새가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30절)

- ① 아브넬 ② 다윗 ③ 사울 ④ 솔로몬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2-30절)

- ①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다. ②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다.
③ 요압의 집안은 벌을 받게 되었다. ④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지 않았다.

with
생각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시간이 흐른 뒤,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의 지역에 다녀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브넬을 뒤쫓아가 원수를 갚기 위해 그를 죽였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의 집안에 벌을 내렸고, 그로 인해 요압의 집안은 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요압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1.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사무엘하 4:1-5:25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다윗이 기쁨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요새로 내려갔다.
18.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19.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20.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다.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온갖 우상을 그 곳에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치웠다.
22.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웠다.
23.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24.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진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25. 다윗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바알브라심'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20절)

“ ...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듯이, 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버리셨다.' ... ”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7-25절)

- 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
- ②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다.
- ③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다.
- ④ 블레셋 사람들은 한 번 공격하고 바로 항복하였다.

with
생각

다윗은 온 이스라엘(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보며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고, 다윗을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어려움에 처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해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21.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사무엘하 6:1-23 “주님을 찬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7.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고,
19. 그 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체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1.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 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났을 것이오.
22.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23.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업신여기다: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체통: 신분에 알맞은 체면

with
관찰

1. 다윗은 주님의 궤를 어디로 옮겼나요? (16절)
① 남한산성 ② 다윗성 ③ 북한산성 ④ 만리장성

2.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21절)

“... 그러니 나는 주님을 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며 떨 것ियो.”

with
생각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지요. 그 모습을 본 미갈은 보기 민망하다며 다윗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과 항상 함께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했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아침에 일어난 친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해주세요.
3. 친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친구를 그대로 안은 채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2021년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OO 이가 올 한해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한해가 되게해주세요.

우리 OO이가 한 살을 더 먹어 몸이 자라는 것처럼

OO이의 생각과 마음도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많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대화해보세요.

2021년도 1월 달을 보낸 소감을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무엇이 그대로인지,

새로이 마음먹은 일이나 계획들은

무엇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서로의 하루를 위해서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친구가 잠자리에 들 준비가 다 끝나면 함께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물어보세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쓴 것들이 있다면
칭찬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도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와 함께 아래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4:8)

그리고 친구의 손을 잡거나, 안아주시고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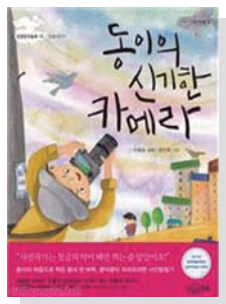
“주님,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지치고 피곤했을지라도 오늘 이 잠자리가
정말 좋은 침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
편히 잠들 수 있게해주세요.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더욱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제목 : 동이의 신기한 카메라
글 / 이병승, 장인옥
출판사 / 강같은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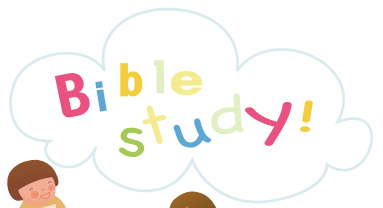


아마존 밀림 숲을 누비며 악어와 사자, 고릴라를 찍고 싶었던 동이, 그러던 어느 날 카메라를 갖고 싶은 열망으로 위험한 유혹에 빠져 까만색 휴대폰을 갖게 되는데... 그 후 가슴이 콩닥거리는 동이의 사진 찍기가 시작 되어요. 누구보다 카메라를 갖고 싶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운 동이는 한 컷, 한 컷 사진을 찍으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비둘기의 모성애,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믿음, 따사로운 미소, 더불어 살아가는 참새 떼의 행렬,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죄책감이 주는 교훈 등등. 고양이, 강아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사랑과 소망, 믿음의 감동까지 조금씩 일깨우게 된 동이는 결국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알게 되지요.

『“그만큼 네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믿었으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거든!”』

결국 동이와 신기한 카메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이 책을 통해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주신 많은 가치들을 동이와 함께 찾아나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가치들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를 감사로 시작 하길 바라요.

1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1월 첫째 주
“나를 소개해요”



1. 가족

- 1) 우리 가족은 (
- 2) 우리 아빠, 엄마는 (

2. 신앙

- 1) 나는 교회에 (
- 2) 예수님은 나에게 (

3. 나

- 1) 나의 장점은 (
- 2) 나의 단점은 (
- 3) 가장 기뻐던 추억은 (
- 4) 가장 슬펐던 기억은 (

4. 2021년 꼭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소원과 기도제목)

-) 있어요.
-) 분이세요.

-) 때부터 나왔어요.
-) 분이세요.

-) 예요.
-) 예요.
-) 예요.
-) 예요.

1월 둘째 주 “나의 예배 약속”



- ① 예배실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반 친구들과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어요.
- ②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배실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다니고 장난쳐도 괜찮아요.
- ③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예배실에 들어올 때 정성껏 드려요.
- ④ 성경말씀은 예배 전에 미리 주보를 보고 찾아놓아요.
- ⑤ 찬양대 친구들이 찬양할 때에는 주보를 보거나 성경책을 찾아도 되요.
- 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야해요.
- ⑦ 말씀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화면에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니, 성경책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요.
- ⑧ 목사님의 축도(또는 주기도문)가 끝난 후에, 찬양대 친구들이 찬양할 때에는 예배가 끝난 것이니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도 되요.



